

KIEP 동북아경제 Newsletter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동북아경제협력센터(CNAEC)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 300-4 (우 137-747) Tel: 3460-1045 Fax: 3460-1125
E-mail: yynoh@kiep.go.kr / www.eastasianet.org

발행인: 이경태 편집인: 안형도
Vol 1, No 1, 2006년 12월

▶ 국별동향

중국

중국, WTO 반덤핑 소송 대상국 제 1위

일본

일본, 인도네시아와 EPA체결
日, 58개월WO 경기확대.. 전후 최장 기록

한국

韓・EU 내년 FTA 협상
年 수출 3000억弗 시대 '할짝'

북한

러시아 대북채무탕감 협상개시 예정
미국 대북 사치품 수출품목 발표

러시아

러시아 경제부, WTO 가입협상 주요결과 공개

▶ 일일동향

▶ 동아시아 경제협력

2006 APEC Summit 주요결과
싱가포르・GCC FTA 협상 개시에 합의
일본・인도네시아 EPA 협상
말레이시아 통상장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과 FTA 체결
가능

▶ 주요회의 및 세미나 소개

제10차 ASEAN+3 정상회담
2nd East Asia Summit(12.13)
Prospects for Regional FTA(s) in Northeast Asia(12.14)
한-카타르 이코노믹 포럼(12.18)
Rise of the Next Giants?: Anatomy of BRICs(12.20)

▶ 신착논문

Expanding Access to Basic Service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Outward FDI from the Intraregional FDI in ASEAN: Trends and Drivers
Setoral Analysis toward a CJK FTA: Logistic Sector
續く中國の高成長とマクロコントロール
國家經濟安全面臨的若干重要問題
핵실험 이후의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 전망

▶ 주요국 경제지표

● 창간의 글

지난 10월 9일의 북핵사태는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경제협력에도 큰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6자회담 재개 선언으로 인하여 동북아지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구축을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이 필요하며 이는 외교적인 대화 이외에도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원의 동북아경제협력센터는 동북아경제협력에 대한 학술연구와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경제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도록 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동북아센터는 동향정보지 『KIEP 동북아경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동북아지역의 각종 경제협력관련 소식을 일목요연하게 전하는 국내 매체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동북아지역 각국의 동향 파악과 이에 따른 연구추진 및 정책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KIEP 동북아경제』는 한・중・일 동북아 주요 3국과 북한, 러시아, 미국 등 6개 국가의 일일 동향과 국별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동북아경제의 현황과 동향에 대한 정리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북아 및 동아시아 관련 국내외 세미나를 소개하여 관련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한편 최신 발간 연구논문을 소개함으로써 연구자간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디 『KIEP 동북아경제』가 동북아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정책입안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창간의 변을 대신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 경 태

국 별 동 향

중 국

중국, WTO 반덤핑 소송 대상국 제1위

WTO가 11월 27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상반기(1-6월) 중 반덤핑 소송을 가장 많이 받은 회원국으로 조사되었다. WTO의 149개 회원국들은 총 87건의 반덤핑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중 중국이 32건을 차지하였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품목은 주로 금속, 기계, 플라스틱, 화공제품으로 나타났다. 2005년 동기기간에는 총 105건 중에서 중국이 23을 차지하였다 (WTO, 11월 27일)

☞ WTO 국가들 중 중국이 반덤핑 소송 대상국가로 지목되는 이유는 중국의 대세계 수출량이 많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WTO가입 당시 협정에 서명했던 3개 조항 즉, 비시장경제 조항, 특정제품의 과도한 보장 조항 및 섬유제품 특별보호 조치 역시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받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역마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 시장경제지위 획득과 FTA 체결을 통해 해결하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산업별 협회에서 상시 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국내산업을 고부가가치로 전환시키기 위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 본

일본, 인도네시아와 EPA체결 합의

아베 신조 수상은 28일,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관련한 조항을 포함한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 협정은 2007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수뇌는 북한에 대하여 납치문제를 포함한 인도상의 불안 요소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지는 데에도 합의하였다. 인도네시아와의 EPA 체결합의는 타이 등에 이어 7번째이다. (마이니치, 11월 28일)

☞ 이미 ASEAN과 FTA를 체결한 중국과 한국에 대해 일본은 상품의 거래장벽을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거래의 원활화, 경제제도의 조화, 서비스, 투자 등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는 경제연계협정(EPA)을 체결하였다.

日, 58개월째 경기확대..전후 최장 기록

일본의 경기회복이 5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경기확대 기간으로

는 전후 최장이다. 일본 정부는 22일 각료회의에서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을 담은 11월의 월례경제보고를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가 58개월째를 기록, 고도성장기인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 57개월간 계속된 '이어나기 경기'를 추월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 후퇴 영향으로 앞으로 수출과 생산 등이 감소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오타 경제재정상은 "현 시점에서 경기의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향후 경기 전망을 낙관했다.(도쿄=연합뉴스, 11월 23일)

☞ 일본의 경기는 지표상으로는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낮은 실질임금 증가와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

韓·EU 내년 FTA 협상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대내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한·EU FTA 협상은 이르면 내년 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11월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EU FTA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협상 개시에 필요한 여론 수렴 절차의 하나이며 이르면 내년 3월에 정부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11월 25일)

이와관련 브라이언 맥도널드 주한 유럽연합(EU)대사는 27일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상견례를 가지며 본인의 재임기간 중의 핵심 업무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임을 강조한바 있다. (한국일보, 11월 28일)

☞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EU FTA 추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동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 증가하고 고용도 중·단기적으로 30만~59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EU는 원칙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고 상대국의 민감품목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농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EU가 체결한 FTA 협정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거대규모의 EU 시장을 성장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年 수출 3,000억弗 시대 '활짝'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3260억달러에 달해 당초 목표했던

3,180억달러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연간 수출액이 3,000억달러를 넘은 세계 11번째 나라에 오르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의 수출실적과 추이를 감안할 때 내달 5일 수출이 3,000억달러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일보, 11월 29일)

☞ 올해초부터 고유가 및 원화강세 등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신장세는 계속되어 전체 무역규모가 6,0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런 상승세를 무난히 이어간다면 앞으로 5년 안에 수출 500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세계경기 둔화, 고유가 및 달러화 약세 지속, 글로벌 불균형 현상 등 불안한 대외환경은 내년에도 지속되어 한국 수출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수출호조세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 FTA 추진, 수출산업 고도화, 안정적 환율운용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러시아 대북채무탕감 협상개시 예정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대폭적인 채무탕감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주내에 북한과 채무상환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29일 밝혔다. 세르게이 스트르차크 재무차관 최종결정은 북한의 재정상태와 거시경제, 담보조건 등을 연구한 뒤 이뤄질 것이라면서 탕감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는 북한이 분할상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탕감되고 남은 북한의 채무는 채권(bond)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물품으로 상환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타르타스통신, 11월 3일)

또한, 11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전문가인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환경 기술 원자력 감독차장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80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테르 팩스 통신, 11월 28일)

☞ OECD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북한의 대러시아 외채규모는 61억 달러(38억 루블)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극도로 침체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대외채무의 원금상환은 물론, 이자지급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1〉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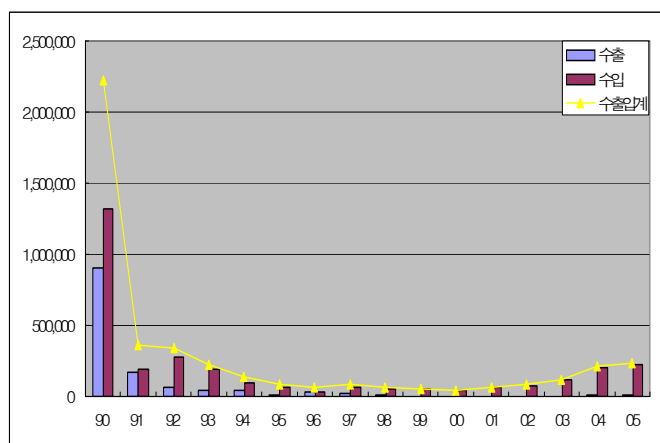
연도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총액	3,529	4,463	6,180	6,180	6,180	6,180

자료: OECD (2004)

☞ 북한의 대러 부채상환문제는 북·러 경제협력이 회복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러시아 정부의 채무탕감 협상개시 발표로 인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러시아의 대북무역 및 투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 22억 2천만 달러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양국간 무역액은 91년 경화결제 도입되면서 2000년에는 4천만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2004년 이후부터 무역액이 2억 달러를 상회하며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북한의 대러시아 교역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Kotra

미국,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품목 발표

미국 정부는 11월 2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품목을 공개하였다. (연합뉴스, 11월 30일)

미국,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품목 발표

미국 정부는 11월 2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품목을 공개하였다. (연합뉴스, 11월 30일)

〈표2〉 미 상무국 발표 대북사치품 금수목록

물품분류	세부품목
의류와 패션 소품	-가족 제품
	-실크 제품
	-천연과 인조 모피
	-패션 소품: 가족으로 만든 여행용품,
	화장품케이스, 망원경과 카메라케이스,
	핸드백, 지갑, 고급 만년필, 실크 스카프
	-화장품
	-향수 등 욕조 비품
	-디자이너 의류: 가족 의류와 의상 소품

물품분류	세부품목
장식품	-바닥 깔개와 태피스트리 -고급 도자기 식기 -레드 크리스탈(lead crystal) 제품 -예술품(그림, 원본 조각 작품과 동상 포함), 골동품(100년 이상 전 것), 희귀 동전이나 우표를 포함한 수집취미품
보석	-진주, 각종 보석(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머랄드 포함)
귀금속	-금, 은, 백금 등
전자제품	-평면, 플라스마, LCD TV나 다른 비디오 모니터나 수신기(고해상도 TV 포함), 29인치 이상의 모든 TV, DVD 플레이어. -PDA -개인용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 -랩톱 컴퓨터(인도주의 구호단체 관련 적법 기관이 수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 인정)
수송수단	-요트와 기타 물놀이 기구(제트 스키 등) -고급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자동차: 왜건형 승용차를 포함 대중교통용이 아닌 것 -경주용 자동차, 눈자동차, 오토바이 -세그웨이 등 개인용 수송 기기
여휴용품	-약기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용품
주류	-포도주, 맥주, 에일(ale, 맥주의 일종), 리커(코냑, 위스키 등 통칭)

자료: 미 상무국

워싱턴포스트는 현재 북한과 미국간의 무역관계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치품 금수목록은 미국보다 많이 대북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일종의 지침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하였다. (워싱턴포스트, 11월 30일)

☞ 미국의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는 효과는 미국 대북제재의 의지를 표명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사치품 반입 억제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 첫째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물자조달을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별도조직을 두고 매우 은밀한 방법을 통해 물자를 구입하고 있다. 둘째, 전 세계에 분포해 있는 외교공관을 통해서도 외교물자의 형식으로 필요 물품 조달이 가능하다. 셋째, 중국이 대북 사치품 반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을 경우, 북·중 접경을 통해 사치품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

러시아 경제부, WTO 가입협상 주요결과 공개

27일 러시아개발무역부는 러시아의 WTO가입관련 협상의 주요 결과 자료를 제품시장과 서비스시장 분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현재 상품시장에 대해서 56개 가입국과, 서비스시장에 대해 27개 가입국과의 협상을 끝마친 상태로 미국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WTO가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표 자료에서, 상품시장은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1~7년에 걸친 점진적인 관세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농업 분야는 2009년까지는 육류수입에 대한 관세할당제도를 유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부분적 자유화를 진행하여 WTO가입이후 농업부문 평균관세는 3%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업분야도 3%정도 감소될 것이나 특별히 섬유, 신발산업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가죽, 면직물 등은 관세인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시장의 경우는 의무사항 대상으로 예상되는 116개 분야 중 천연자원, 에너지, 운송 서비스 분야 등 국가 경제 기능에 핵심적인 분야들은 WTO 의무사항에서 거의 배제된 상황이다. 또한 보험·금융시장은 국내시장의 보호를 위해 부분적으로 개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장의 절반가량이 국내공급자에게 우선 할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Interfax, 11월27일)

☞ 러시아 시장은 최근의 지속적 성장분위기에도 만연한 정부개입 및 부패문제가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WTO가입은 러시아 경제의 제도적 투명성 및 안정성 개선으로 교역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의 WTO가입이 성사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 다자·양자간 경제협력체제에서도 러시아 요인을 본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WTO 의무사항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나 향후 에너지 부분에서의 개혁에 대비하여 대러시아 투자 및 협력에 대한 우리의 전략 또한 장기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일 일 동 향

중 국

중국 등 신흥경제국가 저임금 메리트 과장 돼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중국 등 신흥 경제국가의 저임금 메리트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경제조사 기관인 컨

퍼런스보드(the Conference Board)의 보고서가 발간됨 (중신사, 11월 22일)

2010년 중·미 무역액 3,000억 달러 돌파

위샤오쑹(俞曉松)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주임 겸 중국 시장학회(市場學會) 회장이 지난 21일에 열린 <미국 방문 비자 및 중미 투자무역 세미나>에서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미 간 무역액이 지난 몇 년간 2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늘어남. 앞으로 몇 년간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2010년에는 중미 간 무역액이 3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했음. (중신사, 11월 23일)

OECD, 中 2007년 경제성장률 10.3%에 달할 것으로 전망

OECD는 28일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하여 내년 세계경제는 기존 예상보다 침체 가능성이 높지만 큰 하락세나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반면 중국경제는 내년에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함. (중국증권보, 11월 29일)

일본 재계, 중국·일본 FTA 협상 2008년 시작 희망

와타나베 오사무(渡邊修)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사장은 중국이 WTO 가입 시 양허에 따라 2007년부터 금융, 통신 등 분야를 개방해야 하므로 2007년에 중·일 FTA 구상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음. 중국의 개방이 순조롭게 시작될 경우 양국은 2008년부터 FTA 체결과 관련한 실질적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제일재경일보, 11월 30일)

중 내내에도 경제 긴축기조 유지

중국 지도부는 내내에도 경제 구조조정 및 긴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함. (연합뉴스, 12월 1일)

◆ 올 1~10월 중 기술 도입액 전년 동기대비 37.1% 상승. (신화사, 11월 24일)

◆ 2006년 1~3분기 지역별 수출입을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서부 지역이 수출과 수입이 각각 30.9% 및 24.2%를 기록하여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발개위, 11월 28일)

일 본

日·러 연내 전략대화 개시

일본과 러시아 양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차관급 전략대화를 연내에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음. 전략대화는 지난 18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차관이 연내에 모스크바를 방문, 안드레이 테니소프 제1외무차관과 첫 회의를 갖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음. (도쿄=연합뉴스, 11월 23일)

한일 재계회의 'FTA 협상 재개 위해 협력'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단련(經團連)은 23일 오후 서울 신라 호텔에서 '제22회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 양국 재계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음. 참석자들은 양국간 인적, 문화적 교류 증진을 위해 경제계가 적극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특히 현재 중단상태인 한일 FTA의 협상 재개를 위해 양 단체가 상호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서울=연합뉴스, 11월 23일)

日 방위장관 '핵 영해 통과 긴급시 허용'

일본의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24일 정부의 '비핵3원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핵탑재 함정의 영해 통과에 대해 "긴급 사태의 경우에는 할 수 없지 않느냐"며 긴급한 경우 용인할 생각임을 밝힘. 규마 장관은 최근 일부 핵무장 함선의 영해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발언을 전면 철회한 바 있음. (도쿄=연합뉴스, 11월 24일)

日, 인도와 외교강화 추진.. '중국 견제용'

일본 '아베 정권'이 인도와의 외교관계 강화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고 있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다음달 13일 일본을 방문하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회담에서 일본·인도·미국·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전략대화'를 창설하자고 제안할 예정임. 일본·미국·호주 등 3국은 이미 안전보장을 협의하는 각료급 대화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인도를 추가하자는 구상임. (도쿄=연합뉴스, 11월 24일)

BOJ 위원 '日경제 자산가격 위험 없어'

후쿠마 도시카츠 일본은행 금융정책위원은 24일 자산가격 상승이 일본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일본은행(BOJ)의 후쿠마 도시카츠 총재가 이달 들어 지가 상승과 자본 투자 등을 이유로 일본은행이 선제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됨. 후쿠마 위원은 일본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 위험요인은 물가 상승 지연이라며 일본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함. 한편 기업 회생은 기대한 만큼 확산되지 않았고 가계도 예상보다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힘. (블룸버그, 11월 24일)

기업의 8할 이상 해외사업 강화, 확대 예정 -

국제협력은행 조사

국제협력은행이 발표한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사업 전개에 관한 조사(유효회답 59.4 사)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해외 사업을 “강화, 확대할 것이다”라고 회답한 기업이 82.8%로 작년 보다 3.7포인트 웃돌아 과거 최고치를 기록함. 경기 회복에 힘입어 인건비 등이 쏠 해외에서의 생산 확대와, 신흥국 시장에서의 판매 확충 의욕을 내비치고 있음. (요미우리, 11월 25일)

‘한중일 정상, 대북 5개항 요구 합의’

미국과 일본, 한국 3국은 조만간 재개될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5개항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였음. 5개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을 수용할 것 ▲지난 10월 핵실험을 실시했던 실험장을 봉쇄할 것 ▲모든 핵관련 시설을 신고할 것 ▲영변에 있는 핵관련 시설의 이동을 중지할 것 ▲작년 9월 6자회담에서 채택된 핵무기 및 핵계획 포기를 요구한 공동성명을 일정 기간내에 이행할 것 등임. (도쿄=연합뉴스, 11월 26일)

‘외국인투자자, 日에 매력없었나?’

올해 일본 주식시장과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4년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11월18일까지 올해 일본 증시와 중장기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11조6000억엔으로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줄어들었음. 이것이 불투명한 일본 경제 전망을 시사함. 일본 기업 실적에 대한 어두운 전망과 최대 무역대상국인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외국인투자자들로 하여금 일본 시장 투자를 꺼리게 하고 있음. (니혼게이샤, 11월 26일)

세계경제의 급격한 감속 없는 한 일본경제 확대 추세

후쿠이 토시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27일 오사카 대학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일본 경제의 경기부양책은 꾸준히 강해지고 있어 세계 경제의 급격한 감속과 같은 사태에 휩쓸리지 않는 이상, 확대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음. (로이터, 11월 27일)

日경찰, 링거 수출 관련 조총련 사무실 등 수색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링거를 대량 반출하려한 사실을 적발, 조총련 도쿄 본부 등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음. 조총련 단체 소속의 한 여성(74)이 일본인 의사(59)에게 부탁해 무허가로 받은 링거를 지난 5월 니가타(新潟)항에서 만경봉호로 방북할 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반입하

려 하였음. (도쿄=연합뉴스, 11월 27일)

‘美·日, `6자 공동성명 이행` 등 3개항 요구’

미국과 일본은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핵포기 계획을 담은 지난해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을 일정기간 내 이행토록 확보하는 등 북한측에 3개항을 요구하기로 거의 의견을 같이함. 일본 정부는 북한에 ▲10월 핵실험에 대한 사과와 재실험 무기한 중단 ▲북한 내 모든 핵관련시설 신고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기사찰 수용 ▲6자회담 공동성명 일정기간 내 이행 확약 등 3개항을 요구할 계획임. (요미우리, 11월 27일)

日, 소매판매 0.2% ↓..소비둔화 우려 증폭

일본의 10월 소매판매가 전월비 0.2% 감소했다고 경제산업성(METI)이 발표하였음.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0.4%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임. 다만 전년비로는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은 소비지출이 경기 확장을 주도하기에 충분치 못한 탓으로 풀이되고 있음. 더구나 일본은 현재 수출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블룸버그, 11월 27일)

- ◆ 일본은 지난 10월 기업 서비스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하였음. (일본은행, 11월 27일)
- ◆ 현재 경기 확대기 성장률 연 평균 2.4%로 이자나기 경기 11.5%, 버블 경기 5.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개인소비 증가율도 이자나기 경기 때의 연평균 9.6%에 비해 훨씬 낮은 연평균 1.5%에 그치고 있음 (문화일보, 11월 27일)
- ◆ 일본 상장기업 2006 회계연도 상반기(4~9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익률 10.8% 증가. 경상이익은 15%, 세금공제 후 이익 25%증가. (니혼케이자이신문, 11월 27일)

북한

김만복 국정원장 "북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김만복 국정원장은 "UN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라 북한은 외화, 식량, 에너지 3년이 가중되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미디어오늘, 11월 23일)

WSJ "대북금융제재 해제 논의 안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제재해제는 전략적인 실수이며 현행법률에 대한 모독이라고 24일 주장함. (연합뉴스, 11월25일)

日, 대북제재 효과 위해 관세법 처벌 강화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의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6일 보도함. (연합뉴스, 11월 26일)

WFP "국제사회 대북식량지원, 계획안 12%에 불과"

장 피에르 드 마저리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 대표는 "지난 2년간 매년 30만의 식량을 북한에 전달했지만 올해의 경우 1만5천t 밖에 지급하지 못했다"면서 "전체 지원계획의 12% 밖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연합뉴스, 11월 29일)

日 대북제재 여파..단동 경유 北수산물 수출 격감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본이 잇따라 대북제재 조치에 착수함에 따라 중국 단둥(丹東)을 경유해 수출되는 북한 해산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연합뉴스, 11월 30일)

美, 6자회담 여전히 내달중순 재개 기대

톱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베이징(北京)에서 이뤄진 북.미 양자접촉 결과 합의 발표가 없었음에도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무대 설치 측면에서 진전을 보고 있다"며 6자회담의 내달 중순 재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둠. (연합뉴스, 11월 30일)

개성공단 北 근로자에 회계 교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북측 회계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11월 한 달간 회계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힘. (연합뉴스, 11월 30일)

日, 핵실험 제재로 대북 무역 55% 급감

일본의 지난 10월 대북한 무역 총액이 8억6천만엔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55.6% 감소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재무성 무역통계를 인용, 보도함. (연합뉴스, 12월 1일)

러시아

러시아, 미국과 800페이지에 달하는 WTO 협정체결

19일 러시아 경제발전무역부 부장 German Gref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미국측 대표인 Susan Schwab과 러시아의 WTO가입을 위한 양자협정에 서명하였음.(Moscow Times, 11월20일)

러시아 외국인 투자 급증 추세

러시아 연방통계청은 1~9월간 러시아 외국인투자 규모가 전년대비 31.7% 증가한 353억불에 달한다고 밝힘. 대러시아의 총 누적투자액 또한 2006년 9월말까지 1299.98억달러에 이르는 등 2005년 9월말과 비교했을 때 34.8%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대러시아 주요 투자국은 키프로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으로 각각 전체의 21.6%, 17.3%, 15%의 비중을 차지함.(Itar-Tass, 11월 20일)

Severstal-Avto社, 쌍용 자동차 카이런 생산

Severstal-Avto는 Naberezhnye Chelny에서 한국 쌍용자동차의 카이런을 조립생산하기 시작함. 또 다른 모델인 렉스턴 또한 10월 4일 생산을 시작했으며 생산공장 대표인 Alexander Korneichuk는 이 공장에서는 연간 25,000여대의 카이런이 생산될 예정으로 렉스턴까지 포함한 총 생산량은 100,000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 (Itar-Tass, 11월21일)

푸틴, 폴란드 육류수입 분쟁 유럽전체 확장가능성 없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폴란드산 육류수입 금지와 관련된 문제가 EU전체로 확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러시아는 기타 폴란드 농산물의 품질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만사항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힘. (Interfax, 11월23일)

러시아 EU간 가스가격 문제 해결 합의

헬싱키에서 열린 러시아-EU간 정상회의 이후 러시아와 EU간 가스가격의 편차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밝힘. 푸틴은 단순히 가격수준 만이 아니라 가격결정체계 또한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양 지역간 가격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함. (Interfax, 11월24일)

러시아, CIS국가 내 러시아인들의 권리보장에 우려표시

러시아의 제1 외무부 부관 Alexander Denisov는 러시아는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내 러시아인들의 교육, 언론, 문화 영역에 걸친 거주환경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시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인도주의적 협력을 위한 상호대화를 강화할 뜻을 비침. (Interfax, 11월26일)

OECD, 러시아 정부의 시장개입 비판

OECD는 러시아정부의 경제장악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정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OECD는 러시아 경제분석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석유, 금융, 항공, 전력 부문 등에 대한 정부통제의 강화가 부패를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부패가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함. (Moscow Times, 11월28일)

일본, 러시아에 철강 파이프에 대한 특별관세

부과 철회 요청

아키라 아마리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러시아가 일본산 철강 파이프에 부과한 8%의 특별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함. 보호조치로 부과된 이번 특별관세는 12월 18일 효력을 발휘하여 일본산 철강 파이프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3년간 적용될 예정임. 한편, 일본의 대러시아 파이프 수출은 사할린 지방의 석유,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수요증가로 2002년 3,000톤에서 2004년 270,000톤으로 급격히 증가한 바 있음. (Itar-Tass, 11월28일)

300여명의 일본투자자 러시아 투자 포럼 참가

300여명의 일본사업가들이 도쿄에서 열린 "Invest in Russia" 포럼에 참가하여 러시아-일본간 다양한 무역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Russian-Japanese Business Council (RJBC)의 이사회 의장인 Aslan Atabayev가 밝힘. Aslan은 현재 일-러간 경제협력규모는 일본-중국의 30분의 1에 불과하나 러시아는 기초학문분야에서 일본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상호보완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Itar-Tass, 11월 29일)

S&P, Gazprom과 Transneft's 신용등급 상향조정

The Standard & Poor's 는 러시아 거대 가스회사인 Gazprom의 신용등급을 "Stable" BBB-에서 BBB 로, 러시아 국영송유관 운송업체인Transneft는 BB+에서 BBB+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음. (Itar-tas, 11월30일)

제3차 EurAsEC(유로아시아경제공동체)

금융경제협력 회의 개최

러시아 경제발전무역부 부장 German Gref는 제3차 EurAsEC 금융경제협력회의에서 석탄, 가스, 수력 등을 이용하여 낮은 자원 비용으로 전력공급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힘. 또한 내년 회의에서는 역내 단일 수송·물류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Itar-Tas, 12월1일)

- ◆ 러시아 통계청은 10월 러시아내 실업자가 4만명 증가하였으며 6.6%의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발표. (Interfax, 11월 21일)
- ◆ 러시아의 2006년 인플레이션 8.9~9.0%로 전망. (Interfax, 11월 21일)
- ◆ 1~10월간 러시아 천연가스 생산량 전년대비 2.6% 증가한 5384억m³기록. (Interfax, 11월 21일)

미 국

'대북 제재에 선결과제 많아'<KEI 토론회>

미국의 제재관련 전문가들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제재와 북한' 토론회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많은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연합뉴스, 11월 21일)

美 경제성장 둔화..올해.내년 성장예상 하향수정<백악관>

미국 백악관은 미국 경제가 "더욱 지속가능한 성장 수준"으로 감속하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치 3.6% 보다 낮은 3.1%로 수정 예상했음. (위싱턴=연합뉴스, 11월 22일)

미국무부 "6자회담 논의에 좋은 진전"

미 국무부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차관보의 베이징 방문과 관련, 6자회담 준비 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논평했음. (위싱턴=연합뉴스, 11월 22일)

美, 러시아 수호이츠 제재 해제... "북한 기업들은 안돼"

미국은 러시아 방산 항공업체인 수호이츠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지만 북한과 같은 다른나라 제재 회사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풀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위싱턴=CBS, 11월 23일)

美 정·재계 '경제 포퓰리스트' 득세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 '루 돕스 민주당원(Lou Dobbs Democrats)'으로 불리는 경제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하고 있음. CNN의 유명 앵커 루 돕스는 원래 보수적 경제 칼럼니스트였지만 최근 수년 동안 극적으로 방향을 전환, '자유무역(free trade)'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 (Economist, 11월 23일)

美 부동산 버블의 그늘

지난 5년동안 지속적으로 오르다 올해 폭락한 주택 가격으로 미국 사회가 각종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적당한 가격의 싼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무주택자는 교외로 밀려나고 있음. (US Today, 11월 24일)

북미, 中 중재로 내일 회동 유력

북미 양국 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은 중국의 중재로 화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뉴욕 채널을 통해 김 부상의 베이징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11월 27일)

부시-후진타오 통화..6자회담 논의 주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문제 등에 관한 하노이 양자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진전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백악관이 밝혔다. (AP AFP, 11월 28일)

미 하원 의원, 개성공단 방문

한미 정부가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소속의 하원 의원인 매들린 보달로, 에디 존슨, 마이클 혼다, 짐 맥더모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 등 6명이 오는 1일 개성공단을 찾을 예정이다 (YTN, 11월 28일)

북한이 핵폐기 나서면 '韓-美-北 만나 종전선언 서명하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설 경우 노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6·25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성명을 할 것과 북한에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11월 30일)

미국인 "北 혐오증 여전, 中 호감도 개선"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오증을 갖고 있는 반면,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차츰 호의적인 시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30일(현지시각) 조사되었음. 뉴욕의 퀸피랙 대학 여론조사연구소가 11.7 중간선거가 끝난 뒤 지난 13-19일 미국인 성인남녀 1천623명을 상대로 16개국과 유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호감도 변화를 지난 8월과 대비하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위싱턴=연합뉴스, 11월 30일)

韓·日·호주 NATO 참여 무산

동유럽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이틀간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이 29일 폐막되었음. 당초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결국 추진받는데 실패했고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참여는 '추후 논의'하는 선에 그쳤음. (문화일보, 11월 30일)

"부시 대북정책 변화 기대는 무리"<전문가포럼>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라우브 교수는 30일 뉴욕대학교 와그너스쿨에서 열린 '민주당 정국 주도하에서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주제의 전문가포럼에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실용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음. (위싱턴=연합뉴스, 12월 1일)

- ◆ 10월 美 경기선행지수는 138.3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1월 이후 처음으로 두달 연속 상승(블룸버그 11월 20일)
- ◆ 10월 기존 주택판매는 연율 615만건으로 0.5% 감소, 2004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전망(블룸버그, 11월 26일)
- ◆ 10월 미 개인소득(계절조정)은 전월(0.5%)대비 0.4% 증가하였고 개인지출 역시 전월(0.2%) 대비 0.2% 증가하였음. (블룸버그, Wall Street Journal, 11월 30일)

동아시아 경제협력

2006 APEC Summit 주요 결과

- ◆ DDA 협상 재개 및 균형 잡힌 결론 도출을 위한 별도의 성명서 발표
- ◆ 향후 15년간의 APEC 경제·통상 협력을 목적으로 한 부산 로드맵(Busan roadmap) 실행을 위한 Hanoi Action Plan 승인
- ◆ APEC 포럼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의사항 승인
- ◆ 테러리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협력에 동의
- ◆ 역내 안정을 위한 전염병 예방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에 동의
- ◆ 18th APEC Ministerial Meeting의 공동성명서는 다자 무역구조 강화, Hanoi Action Plan, RTAs/FTAs, 무역·투자 자유화 및 촉진, 부패 방지와 투명성, 인간안보(human security), 경제·기술 협력, 경제 관련 이슈, 재계와의 교류, 문화 교류 및 관광 협력, youth cooperation, gender integration, APEC 개혁, 각료 회담, 향후 회담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Washington Trade Daily, 11월 20일)

인도 통상장관 “현재 중국과 FTA 논의할 단계 아니다”

인도의 Kamal Nath 통상장관은 현재 중국-인도 FTA를 논의할 단계가 아님을 밝힘. Nath 장관은 중국-인도 FTA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양국 간의 보다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히면서 중국의 활발한 인도 투자를 기대한다고 전함. 또한 중국과 인도의 정상들은 양국의 교역량을 2배 규모로 늘려 2010년에는 교역량이 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함.

(Washington Trade Daily, 11월 21, 22일)

싱가포르·GCC FTA 협상 개시에 합의

싱가포르와 Gulf Cooperation Council(GCC)은 FTA 협상을 개시하고 2007년부터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2005년 GCC와 싱가포르의 교역량은 23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04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GCC FTA가 체결될 경우 이는 양국을 전략적으로 잇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됨.

(Washington Post, 2006년 11월 25일)

일본·인도네시아 EPA 협상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

ment) 협상을 위한 전반적인 조항들에 대한 결정을 마쳤다고 인도네시아의 Mari Elka Pangestu 통상 장관이 전했으며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몇 달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알려짐. EPA 협정문에 따라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제조상품과 농산물, 해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이나 쌀과 합판 등의 관세는 그대로 적용할 것이며,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자동차 제품과 전자 제품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으로 알려짐.

(Washington Trade Daily, 2006년 11월 27일)

말레이시아 통상장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과

FTA 체결 가능

말레이시아의 Rafidah Aziz 통상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very near future”) 미국과의 FTA 협상을 마치고 체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양국은 3번의 걸친 협상을 마쳤고 2007년 1월에 네 번째 협상을 가질 계획이며 이미 양국의 요구와 민감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Aziz 장관은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협상이 아닌 시장 주도형(market driven)의 협상이 되어야 함을 언급했고 미국이 말레이시아 국내 정책에까지 침범하게 될 경우 협상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함.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Washington Trade Daily, 2006년 11월 30일)

주요회의 및 세미나 소개

제10차 ASEAN+3 정상회담

일자: 2006년 12월 11일(월)
장소: 필리핀 세부
문의처: www.aseansec.org

2nd East Asia Summit

일자: 2006년 12월 13일(수)
장소: 필리핀 세부
문의처: www.aseansec.org

Prospects for Regional FTA(s) in Northeast Asia

일자: 2006년 12월 14일(목) 9:00-16:00
장소: JW 메리어트 호텔, Classic 7
주최기관: KIEP, 동북아경제학회
문의처: yskoo@kiep.go.kr

'Tradition', Environment and Publicness in Asia and the Middle East

일자: 2006년 12월 15-16일
장소: Chiba University, Multi-media Conference Room
주최기관: Chiba University, IDE-JETRO
문의처: sympo-sc@ide.go.jp

한-카타르 경제 포럼: 제 2의 두바이, 카타르를 선점하라

일자: 2006년 12월 18일(월)
장소: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 영빈관
주최기관: 한국무역협회 / Helvetica 그룹
문의처: jeongpark@kita.net

Rise of the Next Giants?: Anatomy of BRICs

일자: 2006년 12월 20일(수) 13:30-18:20
장소: Keidanren Hall (Keidanren Kaikan 1-9-4 Otemachi, Tokyo)
주최기관: JETRO, The World Bank, Asahi Shimbun
문의처: sympo-sc@ide.go.jp

신착발간 논문

Expanding Access to Basic Service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Poverty Reduction

Adrian T. P. Panggabean
ADB, November 2006

This paper argues tha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financing modality can work for the poor. To achieve this outcome, governments need to first create the appropriate enabling environment for PPPs to work, and then take further steps to ensure pro-poor benefits of infrastructure provision. The paper defines what PPP is and highlights the types of PPPs that fall under that definition: from service or contract management to full-scale privatization with many models in between.

Outward FDI from and Intraregional FDI in ASEAN: Trends and Drivers

Daisuke Hiratsuka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IDE), JETRO
November 2006

Developing-country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are increasing in importance in the global economy. Outward FDI from developing countries is a proxy indicator to measure how much of an important role enterprises of developing countries have played in the world market and how they benefit from globalization where border barriers are reduced. This study finds that ASEAN enterprises have extended their business activities within ASEAN, East Asia, and then to the world, as both regional and global players.

Sectoral Analysis toward a CJK FTA: Logistic Sector

Mituhiko Kataoka
NIRA, November 2006

This paper reviewed the competitiveness in the subsectors of service trades in China, Japan and Korea and compared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regulations in the logistics sectors- one of the major subsectors of

the service sector-of these three countries.

This study found that not all service industries in the three countries display comparative disadvantages and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trades in each country differs from product to product. China displays trade competitiveness in travel services while Japan and Korea displays trade competitiveness in transport services.

續く中國の高成長とマクロ コントロール

NLI Research Institute, November 2006

11月上旬、北京、上海を訪問し、複数のエコノミストの中国経済に関する見方を聞く機会に恵まれた。中国では、今年に入ってから、不動産市場の構造調整策、投資案件や土地使用に関する取り締まりの強化などが相次いで実施され、金融面でも、1年物で0.27%と小幅ながら利上げが2回、準備率の引き上げが3回と、2003年半ばに始まったマクロ・コントロールの追加措置が打ち出された。その結果、7～9月期以降の投融资、生産統計には減速傾向が表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が、水準自体なお高く、4年連続の二桁成長は確実という情勢だ。2003年以降、エコノミストの多くが翌年の中国経済の減速を見込みながら、年央には上方修正を余儀なくされてきたが、今回のヒアリングでは、2007年も高成長は続くとの見方がコンセンサスであった。従来、中国経済減速のシナリオとしては、投資の急拡大が引き起こした素原材料等の国際価格の高騰が制約要因になること、マクロ・コントロールがオーバー・キルをもたらすこと、海外の需要鈍化や貿易摩擦の激化による輸出の減速などが考えられてきた。投資・輸出主導の高成長が続けば、後々の調整リスクが大きくなるため、早期抑制が不可欠という立場からの減速見通しもあった。この間、成長率は年々高まっており、これらのリスクが消失したとも言えない。にも関わらず、現在では強気の見通しがコンセンサスとなっているのは、政策が影響する範囲は限られており、政策路線の大幅な修正もないため、投資・輸出は底堅く推移するとの認識が定着したからだろう。

國家經濟安全面臨的若干重要問題

陳德照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November 2006

21世纪初, 中国所处的国际环境是复杂多变的。世界经济与政治处在急剧变化的过程中。中国也在变。由于经济进入了可持续发展的迅速增长期, 中国经济与社会的方方面面正在发生重要变化。旧

的经济安全问题有的淡化了, 有的消除了, 但又出现了一些新问题。这样的问题很多, 目前和今后一个时期, 需要我们更加关注的是:

一、经济规模迅速扩大掩盖下的经济质量问题是中国经济安全中的最大隐患。中国同美国等主要发达国家在经济内涵和质量方面的差距有可能进一步扩大。

二、某些重要部门的核心技术长期掌握在外国跨国公司手中, 对中国经济安全构成威胁。

三、外贸依存度过高降低了我国经济抵御外部风险的能力, 增加了我国经济脆弱的一面。

四、跨国公司并购活动给中国经济安全带来挑战。

五、能源和资源短缺已经成为中国经济社会可持续发展的严重障碍。2005年国际油价上涨给中国经济带来了消极影响。但如果从经济安全角度看问题, 更加令人关注的不是油价本身, 而是油价背后的因素。

핵심협 이후의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제8권 3호

북한 핵심협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의 농업 분야 교류 협력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고 있는 대북 쌀 및 비료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분야 협력사업도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원 성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구진:

안형도, 김종혁, 방호경, 정승호, 구연수, 노유연

주요국 경제지표

		2004	2005	2006								
				1	2	3	4	5	6	7	8	9
실질 GDP 증가율 (%) 1)	중국	9.5	9.9	←	10.2	→	←	11.3	→	←	10.4	→
	일본	2.3	2.7	←	3.9	→	←	2.6	→	←	2.7	→
	한국	4.7	4.0	←	5.3	→	←	6.1	→	←	5.3	→
	미국	3.9	3.2	←	5.6	→	←	2.6	→	←	1.6	→
	러시아	7.2	6.4	←	7.9	→	←	5.5	→	←	7.4	→
일인당 GDP (달러)	중국	1,486	1,703	-	-	-	-	-	-	-	-	-
	일본	35,914	35,787	-	-	-	-	-	-	-	-	-
	한국	14,161	16,306	-	-	-	-	-	-	-	-	-
	미국	39,847	41,984	-	-	-	-	-	-	-	-	-
	러시아	4,116	5,319	-	-	-	-	-	-	-	-	-
수출 (십억달러)	중국	593.4	762.0	65.0	54.2	78.1	77.0	73.1	81.3	80.3	90.8	91.6
	일본	565.0	598.2	43.4	49.6	58.0	52.1	50.4	55.6	54.8	53.0	57.9
	한국	253.8	284.4	23.3	23.8	26.9	25.6	27.8	28.1	26.0	27.3	29.7
	미국	807.5	894.6	81.4	80.6	82.4	81.8	84.1	87.0	85.5	88.0	88.6
	러시아	182.0	243.6	20.9	22.2	24.5	23.8	26.9	25.3	25.6	-	-
수입 (십억달러)	중국	561.4	660.1	55.5	51.7	66.9	66.5	60.1	66.8	65.7	72.0	76.3
	일본	454.7	518.6	46.4	41.6	49.8	46.6	46.9	48.5	47.4	51.3	49.3
	한국	224.5	261.2	22.8	23.4	25.7	24.2	26.1	26.0	25.4	27.0	27.9
	미국	1472.9	1677.4	153.6	148.8	150.1	151.4	155.1	157.0	158.9	162.9	158.7
	러시아	75.4	125.3	8.7	10.2	10.1	9.3	10.7	12.3	11.7	-	-
경상수지 (십억달러)	중국	68.7	160.8	-	-	-	-	-	-	-	-	-
	일본	172.0	166.3	6.2	18.7	20.4	10.9	14.1	8.9	15.6	12.7	17.2
	한국	28.1	16.6	0.1	-0.8	-0.4	-1.6	1.4	0.9	-0.2	-0.5	1.4
	미국	-665.4	-791.5	←	-213.2	→	←	-218.4	→	-	-	-
	러시아	58.2	84.2	←	29.5	→	←	27.0	→	-	-	-
외환보유액 (십억달러)	중국	609.9	818.9	845.2	853.7	875.1	895.0	925.0	941.1	954.5	972.0	987.9
	일본	844.5	846.9	851.7	850.1	852.0	860.2	864.1	864.9	871.9	878.7	881.3
	한국	199.1	210.4	216.9	216.0	217.3	222.9	224.7	224.4	225.7	227.0	228.2
	미국 ²⁾	86.9	65.1	65.6	65.4	65.4	66.8	67.1	-	-	-	-
	러시아	119.1	124.9	138.2	140.7	143.1	153.3	181.1	184.9	197.1	182.8	181.1
환율 ³⁾ (자국화폐/ US\$)	중국	8.28	8.07	8.06	8.04	8.02	8.01	8.02	7.99	7.97	7.95	-
	일본	107.5	113.3	115.5	117.9	117.3	117.1	111.5	114.5	115.7	115.9	-
	한국	1,143.7	1,024.1	983.8	970.0	975.2	952.9	941.2	955.3	950.6	961.0	952.8
	미국	85.36	83.79	84.44	85.22	85.17	84.05	80.78	81.67	82.09	81.33	81.75
	러시아	2,924	2,430	2,211	2,122	2,163	2,125	2,171	2,246	2,190	2,156	2,166
실업률 (%)	중국	4.2	4.2	-	-	-	-	-	-	-	-	-
	일본	4.7	4.4	4.5	4.1	4.1	4.1	4.0	4.2	4.1	4.1	4.2
	한국	3.7	3.7	3.7	4.1	3.9	3.5	3.2	3.4	3.4	3.4	3.2
	미국	5.5	5.1	4.7	4.8	4.7	4.7	4.6	4.6	4.8	4.7	4.6
	러시아	7.7	7.7	7.7	7.7	7.6	7.5	7.2	7.5	7.3	7.2	7.1
주가지수 ⁴⁾	중국	75.7	62.0	86.5	86.3	88.3	90.7	96.3	92.4	90.9	91.8	107.8
	일본	11,489	16,111	16,650	16,205	17,060	16,906	15,467	15,505	15,457	16,141	16,128
	한국	832.9	1,073.6	1,379.3	1,341.7	1,331.7	1,415.9	1,388.8	1,249.2	1,278.0	1,316.1	1,356.5
	미국	10,783.0	10,717.5	10,864.9	10,993.4	11,109.3	11,367.1	11,168.3	11,150.2	11,185.7	11,381.2	11,679.1
	러시아	614.1	1,125.6	1,316.0	1,453.4	1,435.0	1,657.3	14,661.2	1,494.6	1,551.1	1,626.7	1,550.0
OFDI (백만달러)	중국	1,805	11,306	-	-	-	-	-	-	-	-	-
	일본	30,951	45,781	-	-	-	-	-	-	-	-	-
	한국 ⁸⁾	4,658	4,312	670	613	903	948	816	690	727	1,122	965
	미국	222,437	-12,714	-	-	-	-	-	-	-	-	-
	러시아	13,782	13,126	-	-	-	-	-	-	-	-	-
IFDI (백만달러)	중국	60,630	72,406	-	-	-	-	-	-	-	-	-
	일본	7,816	2,775	-	-	-	-	-	-	-	-	-
	한국	7,727	4,312	-	-	-	-	-	-	-	-	-
	미국	122,377	99,443	-	-	-	-	-	-	-	-	-
	러시아	15,444	14,600	-	-	-	-	-	-	-	-	-

1) 미국, 일본 GDP 전년대비연율, 나머지 전년동기; 2) 금+SDR+IMF포지션+외환; 3) 중국 Reuters 고시환율; 일본 동경시장 현지종가 기준; 미국 캐나다, 유로지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등 7개국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환율지수 명목기준; 러시아 Reuters 고시환율; 4) 중국 상해 B지수 기말기준; 일본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한국 코스피지수 기간평균; 미국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러시아 RTS지수 기말기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정보 지역별통계,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UNCTAD, IMF 등